

봉축특집

불기 2522년

“마음 밖에서 따로 진리를 찾지 말라”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여신 날입니다. 무명(無明)과 탐욕(貪慾) 속에 갇혀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워 중생을 다시 부처로 태어나게 하였고 고통 속에서 대비(大悲)를 일으켜 해탈(解脫)을 얻게 하여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부처를 이루는 길도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진리가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마시다.

우주와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일체 성인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느님

의 신성(神性)이 들어있고 중생의 자성(自性)에는 부처님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헤아리면 어긋납니다. 무명번뇌(無明煩惱)가 부처를 이루는 그대들의 살림살이요 찾고 구하려는 것은 그대들을 얽매어 게 합니다.

불향성중작(佛向性中作)이요
막향신외구(莫向身外求)니라
부처를 자성 속에서 지을지언정
자기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동체대비 서원으로 자타구제 하길”

■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세존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머무실 때, 사내아이들이 사위성과 기원정사 사이에 있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세존께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느냐? 고통을 싫어하느냐?”

“예, 부처님! 저희들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세존께서 아이들에게 계승으로써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면, 드러내 놓고서든 몰래 숨어서든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나쁜 짓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면, 도망을 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에서 탈아날 수 없으리라.”

지금 세상에는 도처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생애 환경을 마구 파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통을 싫어하면서 다른 생명을 빼앗고, 평화를 호소하는 이들을 총칼로 짓밟는 일이,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끝없는 탐욕은 저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만년설과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태양의 섬을 바닷물 속에 잠기게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세속주의가 이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탐욕이 만년설을 녹이고, 아프리카 조원을 사막화시켜 생명을 사라지게 하며, 평화롭던 산간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순하기만 했던 이들을 싸움꾼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내가 덜 배부르고 덜 따뜻하며 덜 시원하고 쾌락을 덜 누리며 이웃을 위해 나누고 기도하겠다는 자리아타의 동체대비서원을 세워 자타를 구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위야 흔들리지 않아”

■ 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승정 추무원장

山堂靜夜坐無言
寂寂寥寥本自然
何事西風動林野
一聲寒雁淚長天



산당에 조용히 앉아 온갖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없는 것들을 채우려하지 않으니
행주좌와와行住坐臥에 흔들리지않는 경계가 이것이
시끄럽다거나 조용하다거나 하는 것은 다 분별심이다
그것마저 넘어서면 추운 기러기가
장천에서 울고 가는 소식을 알게 되리라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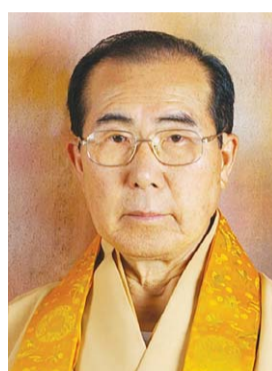
■ 진각종 도흔 총인

법등명과 자등명을 밝혀두고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오안(五眼)과 오지(五智)를 밝혀두고 부처님을 관하는 법이 되는 것이므로, 최상 근기의 불신관법(佛身觀法)이 되는 것입니다.

법등명과 자등명을 밝혀두고 부처님을 보게 된다면 우주 대자연과 인생에 대한 근본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므로, 철학적인 사명을 다하게 되어서 전미개오(轉迷開悟)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룸이 되는 것입니다. 전미개오는 곧 우주법계의 육대법신과 무량제불의 진리를 다 깨닫고 일체 되는 것이므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생불멸의 진리이치를 깨닫게 된다

면 선악 인과응보의 진리를 추호도 속일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 인과응보의 진리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능히 선을 행하게 되고 능히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항상 행복하고 안락하게 되어서 진실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자대비 실천 위한 정진의 등불켜길”

■ 총지종 효강 종령

마음은 모든 행위의 근본임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원력과 의지력으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저 미생들까지도 불성(佛性)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마음,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음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사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청정한 마음자리를 간직하기 위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아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웅망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루신 참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 밝고 청정한 마음, 남과 이웃을 위한 등불을 밝혀서 탐욕과 증오와 망상이 사라진 서로 나누고 화해하며 향기로운 광명천지의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 웅망정진 합시다.

옵마니반메흠,
옵마니반메흠,
옵마니반메흠,
성도합시다.



‘산은 절로 높고 물은 절로 깊어’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중생과 부처가 서로 차별 없으니 산은 절로 높고 물은 절로 깊어라
천차만별한 현상은 분명한 일이나 자고새 우는 곳에 백화가 새로워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종장 죽산 스님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함은
기요여래진실의(己)如來眞實意요
사대본공(四大本空)하고
오온비유(五蘊非有)함은
시위바라다심(是爲波羅多心)이라



‘부처님 광명 온누리에 비추는 날’

■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지산 스님

2600년 전 톨미니의 울음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그 소리 빛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도다!
그 빛장항기 부처님의 제 광명이라!



‘본디 아무 것도 없어’

■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추무원장 지암

무에서 유로 푸르른 하늘에 날
벼락이 떨어지고 평범한 땅에서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할 때, 어느 곳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떨하느냐고 묻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날을 맞아 연등불 밝혀 봉축하시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옵니다.

‘진아불성 찾아 정진하길’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대행 정관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탄생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는 “민음은 심지로 삼고 자비를 기쁨으로 삼으며, 생각은 그릇으로 하고 공덕은 빛으로 하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진아 불성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 수행하며 부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뜻 마음속 보배찾는 것같이’

■ 대한불교일분선교종 종정 봉해 스님

내 일찍이 복음이 있어
이제 다시 여기에 태어났네
법계에 둘러리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이
있건만 어두운 중생들
제 몸속에 보배 모르고 밖에서
만 찾는구나!
초파일 부처님 기리는 뜻은 제각기 마음속에
보배를 찾고자 함이네.



‘명상으로 지혜 키워야’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대행 신흥 추무원장

부처님은 명상법을 교시하셨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사마타나 위빠사나 관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지관법(止觀法)과 참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인식해야 합니다.



‘수행정진으로 세상 향기롭게’

■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몽 스님

만약 사람이 욕심을 위해 법(法)을 설하면 그 사람은 욕심 버리고서 도리어 욕심을 취한다 하나니, 우치한 사람은 법의 값없는 보배를 얻고 도리어 다시 돌아다니면서 거지노릇 하느니라. 다투며 떠드는 ‘여러가지 희론(雜論)’의 집착은 마땅히 버리고서 높은 정진 일으키라. 모든 하늘 그리고 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유가(瑜伽)를 그대는 마땅히 배울지니라.



“법계중생 이고득락하기를”

■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중생의 무명을 밝히고 자아를 실현하여 이 땅에 안락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삶의 의미를 끝없는 욕망과 물질의 충족에서만 찾고 있으며, 오직 일신의 영안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지가 개장되고 사물이 날로 증발함에 따라 인간들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청정한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수많은 이물질을 만들어내어 지구를 재생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범아일여요, 생령동근이라’ 했습니다. 천지와 인간은 한 몸통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주인이자, 창조주입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나의 소관이고, 세상이 혼탁한 것도 내 책임입니다.

일부러 복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태여 화근을 짓지 마십시오.

광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잠든 이치를 생각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죄도 복

도 없어서 누구나 진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계유일심
만법개유식
(三界唯一心
萬法皆唯識)

미혹시중생
청정심시불(迷惑是衆生 清靜心是佛)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만법이 인식 소관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착적하면 중생으로 남고, 마음이 청정하고 진솔하면 부처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각자 자세를 낮추어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이로다”

■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불래불법우래불(佛來佛法又來佛)
화소조가시역불(花笑鳥歌是亦佛)
변조광명무여지(遍照光明無餘地)
하방세계유암비(何方世界有暗蔽)
인인각지자등화(人人各持自燈火)
만상무비진묘법(萬像無非眞妙法)

부처님이 오시고 또 오셨네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땅에 오셨네
밝음이 남김없이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니
시방세계 그 어느 곳에 어둠이 있으리
사람들 각각 스스로의 등을 밝히니
삼라만상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이로다



“지혜와 광명을 온 누리에”

■ 대한불교원웅종 종정 일공 스님

부처님께서 오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불교중흥을 엄숙히 서원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는 곳 행복 있어’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대행 해안 추무원장

부처님 오심은 시방법계 대광명
쓰레기 같은 세상일에 노예처럼
끌려 사내 생각 다 버리고 수행
정진하면 모두가 부처 되네.
가지려는 욕심 다 버리면 마음
편해져 미움도 원망도 싸울 일 없
으니 우리의 행복은 그곳에 숨었
다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교법파라 자성 찾아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만들어 살아보세.